시공을 초월해 전해지는 고요한 설법회

국립중앙박물관 '부석사 괘불' 특별전

젊은 스님이 당나라 등주의 부잣집 앞을 지날 때다. 뜰 앞에 기괴하게 생긴 커다란 태호석이 놓여 있고 학들이 노닐며 강아지와 아이가 뛰노는 다복한 그 집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오더니 스님에게 말을 건넨다. "대사를 만난 후 제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타국에서 난데없이 고백을 받은 젊은 스님은 의상(義湘: 625~702)이었고, 수줍게 말을 건넨 여인은 선묘(善妙)였다.

의상이 선묘를 만난 것은 원효와 헤어진 다음이다. 원래 의상은 당나라로 불교를 배우기 위해 원효와 함께 가던 길이었지만 토굴에서 보낸 하룻밤으로 서로의 길은 달라졌다.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했고 의상은 홀로 당나라로 갔다.

의상은 지엄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삼장의 바다에 노닌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학문을 이뤘다. 선묘의 집에 들러 그간 뒷바라지를 해줬던 것에 감사를 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뒤늦게 의상의 귀국사실을 알게 된 선묘는 공양할 옷가지를 챙겨 항구로 갔지만 이미 의상을 태운 배는 떠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내 본래의 참 뜻은 법사를 공양함에 있습니다. 원컨대 이 옷을 담은 함이 저 배에 날아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선묘는 파도 위로 자신이 갖고 있던 함을 던졌다. 때마침 불어온 거센 질풍에 함은 새털 같이 날라 배 위에 떨어졌다. 선묘는 다시 맹세했다.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해 저 배의 선체와 노를 지키는 날개가 되어 대사님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 맹세를 하자마자 그녀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원력처럼 그녀는 용이 돼 배를 안전하게 신라까지 인도했다.

의상이 산천을 두루 돌며 법을 펼칠 기운 좋은 곳을 찾았지만 이미 삿된 무리들이 차지해 포기하려던 찰나, 의상을 맴돌며 보호하던 선묘룡이 허공에서 대변신을 일으켜 사방 1리쯤 되는 큰 바위로 변해 공중을 맴돌며 떨어질 듯 말 듯 사찰을 덮치려 했다. 공중에 뜬 커다란 바위에 놀란 삿된 무리들은 혼비백산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것이 의상과 선묘의 전설을 담은 부석사 창건설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부석사 괘불(1684년 작)

"현존하는 괘불 중 가장 복잡한 구성
'부석사 괘불'로 국립중앙박물관서 전시"

1684년 조성된 높이 9.2m 너비 5.7m의 부석사 괘불은 펼쳐 세우면 부석사 안뜰을 가릴 만큼 크다. 또 현존하는 괘불 중에 가장 복잡한 구성을 보여준다. 17세기 조성된 대부분 괘불의 테마처럼 부석사 괘불도 '영산회상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설법회에 참석한 군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부석사 괘불은 '영산회상도' 위쪽에 다시 세부처의 설법회 장면을 추가했다. 각 부처를 따라 설법을 듣는 보살과 천인, 팔부중, 역사, 신들을 합하면 대략 70여명이 등장한다. 이렇게 많은 인물이 그려진 복잡한 괘불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의 삼세불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 융합된 구조라고 설명한다. 하단 '영산회상도'는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부처(현재)를 주인공으로 상단의 약사불(과거), 아미타불(미래)과 함께 삼세불회도를 이룬다. 또 석가모니불(화신) 바로 위편에 그려진 비로자나불(법신)은 삼신불회도를 뜻한다. 실제로 1745년에 새로 조성된 부석사 괘불에는 석가모니불 대좌 앞에 노사나불 입상(보신)을 추가했다.

부석사 괘불에는 모든 시공간에 가득하다고 신앙됐던 부처가 상징적으로 도해됐다. 괘불에 그려진 많은 부처를 포개고 포개어 하나의 부처 안에 담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깊은 사고가 담겨 있다. 겉에 보이는 가장 바깥 인형이 석가모니불이라면 석가모니불 위에 위치한 비로자나불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가장 중심부의 인형이다. 각각의 부처가 실상은 하나인 것은 의상이 체득한 <화엄경> 가르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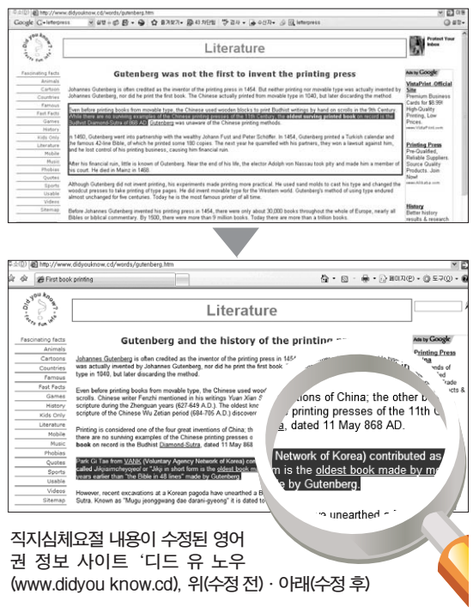
괘불은 부석사를 떠났지만 부처는 움직이지 않았다. 괘불에 빼곡히 그려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모임은 오늘도 고요한 설법회를 이어가며,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諸法不動本來寂)'는 가르침을 전한다. <참고: 부석사 괘불>

한편 '부석사 괘불'을 테마로 한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4월 27일까지 열린다. (02)2077-9000 / 매주 월요일 휴관

조동섭 기자

인터넷으로 지킨 最古 금속활자본 자존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직지심체요절 세계에 바로 알려



직지심체요절 내용이 수정된 영어 권 정보 사이트 '디드 유 노우 (www.didyou know.cd), 위(수정 전) · 아래(수정 후)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는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인들은 독일 구텐베르크가 만든 <42행 성서>만 알뿐 직지는 알지 못했다. 미국, 유럽 등 각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도 어쩌지 못했던 직지를 바로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젊은이들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동해 표기, 동북아 공정 등 다른 국가와 민감했던 사안에 한민족 자존심을 지켜온 반크는 직지 홍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는 1999년 개인 펜팔 사이트에서 출발해 범네티즌 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영어 · 일어는 물론 러시아어 ·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해 및 독도 표기, 고구려 역사 알리기를 통해 한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직지 홍보를 위해 반크 회원들은 우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홍보사이트를 구축했다. 영어판 홍보책자와 엽서를 만들어 세계 각국 도서관, 출판사, 학교, 교육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이트에 일일이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결국 반크의 끈질긴 홍보에 사이트 담당자들은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현재 수정된 내용이 실린 사이트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와 '히스토리 포 키드(www.historyforkids.org)', '디드 유 노우(www.didyouknow.cd)' 등이다. 현재 위키피디아에는 "유네스코가 직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히스토리 포 키드'에는 "한국 목판 인쇄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나와 있다. '디드 유 노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랜된 책인 직지는 금속활자로 만들어져 있고,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고 수정됐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작년은 직지 세계화 운동에 기본을 마련한 해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직지 세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www.prkorea.com)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2〉인도철학회 www.ksip.org

인도 사상의 대중화를 이끄는 학회

인도철학회(학회장 법산)는 인도학, 인도철학, 불교학을 중심으로 인도 사상과 문화 전반을 연구한다. 1988년 인도학인도철학회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학술발표대회를 열었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인도철학>지는 23권을 앞두고 있는 중견 학회다. 1992년 인도철학회로 학회명 개명과 더불어 학회지도 <인도철학>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학회 회원수는 300여명이다. 이 중 교수는 50명, 박사급 이상 연구원 10여명 박사과정 100여명, 석사과정 전공자는 50여명에 이른다.

회원은 인도철학, 불교학, 인도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학사 이상 및 동등한 자격자면 가능하다. 정회원은 연회비 3만원, 영구회원은 50만원 회비를 부담한다.

지난 2003년 열린 제16회 인도철학회 학술발표회 모습 좌로부터 이거룡 교수(동국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인경 스님(명상치료학회).

학진등재후보지로 매년 2월과 8월 총 2회 발간되는 <인도철학>지는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할 논문 외에 서평, 기타 학계 연구작업 기획물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매년 5월과 12월 첫째 금요일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인도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창구다. 2004년 곰브리치 교수(영국 옥스퍼드대) 초청 강연은 일반인들의 불교학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에서 인도철학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영화, 만화 속에 담긴 인도철학 사상을 찾아 학계의 주목을 받은데 이어, 올해 5월에는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부산 동아대에서 '인도철학과 정치이념'(가제)을 갖고 인문학의 유행을 시도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혜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